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6. 1.(월) 14:3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직무대행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직무대행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 (2020-32-15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태영건설이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하고, 그 이행실적을 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승인 조건입니다. SBS미디어홀딩스(주)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주)태영건설 최대주주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얻을 것, 티와이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 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할 것,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동 경영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경영 계획 수립 시에는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것,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소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티와이홀딩스 신설 시 방송 전문 경영진을 포함시키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법인 신설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에 반영할 것,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 3쪽 제안이유입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사전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은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지난 1월 22일 공시하고 사전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2007년 12월 태영건설은 SBS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 동 지주회사의 최대액출자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주식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2013년, 2017년 SBS 재허가 조건에 동 이행각서의 준수가 부가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3일 태영건설에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

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4월 8일에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전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5월 19일에는 (주)태영건설 최대주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승인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법률 등 9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심사 항목은 방송법에 따른 최대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티와이홀딩스 신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법인 신설 목적의 적절성, SBS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티와이홀딩스 신설 목적 및 지주회사 신설이 SBS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SBS 등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구조의 부실과 경쟁력 상실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SBS미디어홀딩스는 방송 분야에 특화된 지주회사이나, 티와이홀딩스는 환경, 레저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포괄하는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SBS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훼손을 우려하였으며, 티와이미디어홀딩스 신설로 인한 SBS 등 내부 구성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건설 최대주주는 그간 방송의 소유·경영분리 원칙을 존중해 왔고, 티와이홀딩스 신설로 SBS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위원회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확인된 최대주주의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동 계획에 대한 검토와 논의 이후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태영건설 최대주주는 지난 5월 29일에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각 조건별 이행실적을 “2020년도 SBS 재허가에 반영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관한 사전승인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는 별개이므로, 심사위원회의 부가 조건이 아닌 방통위의 ‘의결 주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중 SBS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개편 등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그 계획이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와 관련하여, 노조를 포함하여 SBS 종사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자회사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가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SBS 구성원 간 진지하고 자율적인 논의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 계획 마련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태영건설 최대주주는 의견청취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주)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종합의견, 의견청취 결과, (주)태영건설 최대주주가 제출한 이행각서 등을 고려하여,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및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등과 관련된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조건은 의결주문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6월 중에 (주)태영건설에 결과를 통보하고, 11월~12월 중 2020년 재허가 심사 시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심사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는 현재 방송 시장과 또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된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또 공정거래법의 충돌 등의 우려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태영건설 최대 주주가 의견청취 및 각서에서 약속한 사항들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주문에서와 같이 조건으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된다면 SBS 미디어홀딩스는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이나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SBS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경영계획 등을 6개월 이내로 제출해 주시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다른 승인조건들도 착오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도 향후 SBS미디어홀딩스의 승인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태영건설의 법인분할로 인한 티와이홀딩스의 신설이 사전승인이 필요한지와 SBS 최다액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로서 변경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적인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와이홀딩스의 신설로 SBS의 안정적인 경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SBS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영계획과 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방통위의 사전승인 및 변경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법적 검토 결과였습니다. 사전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꼼꼼히 점검해 주신 김창룡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비공개 의견청취에 참석한 윤석민 회장이 티와이홀딩스 신설에 따른 지주회사의 체제 개편이 있더라도 SBS의 경영투명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SBS의 재무건전성과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시민단체와 SBS의 노조 등에서 태영건설의 인적 분할과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승인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윤 회장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행각서 등을 종합해서 반영한 사무처의 5가지 승인조건을 보면 사전승인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승인조건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의 이해관계를 발전적으로 고려한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SBS가 미디어부문 순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 대신에 복합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태영건설이 취한 자본 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SBS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발전가능성을 열어 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잘해 주셨고, 또 허 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와이홀딩스로 가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행각서에도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각서의 실행 여부는 계속 추적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올해 후반부에 SBS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연관해서 다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BS 관련 자회사들의 사업수익이 따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이것을 충분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2가지 말씀만 드리고, 사무처에서 준비한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일단 원안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룡 심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인조건 또 이행각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의지라는 생각입니다. 새로 탄생하는 티와이홀딩스 측에서 우리 공동체 자산으로서의 지상파의 공공성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것과 SBS와 SBS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당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여러분 다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여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7분 폐회 】